Vol. 111 | 2006. 8. 24.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2006년 세계개편안 좌초 우려
- 중국 인민은행 예·대 금리 동시 인상

경영 노트
- 'HP의 부활'을 이끈 판매·홍보 전략

사회 트렌드
- '사회적 지능지수'(SQ)가 중요하다
- '메시지 중독'과 '사이버 휴가'

저널 브리프
- 중국의 '제2 상하이' 추진 전략

洗心錄
- 지식 합성(knowledge synthesis)

現代經濟硏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 2006년 세제개편안 좌초 우려

■ **정부는 지난 21일의 출산 장려, 세수 확대, 자영업자 세원 파악 등을 골자로 하는 '2006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함**

- 정부는 우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녀 2인 이상 가구에 대한 多자녀 추가 공제제를 도입함
- 또한 세수 확대를 위해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의 금융 상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계획임
- 한편 내년 7월부터 자영업자의 정확한 세원 파악을 위해, 변호사 등 전문직의 경우 수입 금액에 상관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할 계획임

■ **그러나 이번 정부안은 무리한 증세에 따르는 경제 상황의 악화, 서민들의 실질적 혜택 미흡에 의한 양극화 심화 등의 정책 부작용이 우려되는 한편, 정치권과 이익 단체의 반발로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임**

□ 중국 인민은행 예·대금리 동시 인상

■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18일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1년만기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0.27%p 인상함(現 각각 6.12%와 2.52%)**

- 동 조치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투자 과열을 진정시키고, 생산부문의 과잉 설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05년 9.9%에 이어 '06년 상반기 10.9%를 기록하였고, '06년 상반기 중 고정투자 증가율은 정부 목표치 18.0%를 크게 상회함

■ **향후에도 이번 금리 인상과 같은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긴축조치가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 진출 기업들이 내수 시장 수요 둔화, 자본 조달 비용 상승 등과 같은 경영 여건 악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HP의 부활'을 이끈 판매·홍보 전략

■ **실적 부진으로 구조조정을 경험한 휴렛패커드(HP)가 강력한 경쟁사인 델(Dell)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화려하게 부활**

- HP는 실적 부진에 따른 경영 악화로 인해 2005년 CEO인 칼리 피오리나를 경질하고 전사적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함
- 이와 같은 노력으로 세계 1위 컴퓨터업체인 델컴퓨터가 시장 경쟁력 약화로 지난 1년간 주가가 30% 이상 하락한 데 비해 HP는 60% 상승했으며, 2006년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50% 증가한 15억 달러를 기록함

■ **HP 부활은 시장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광고 전략 등이 주요 원인**

- 미국 PC 시장의 포화로 인해 시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을 집중 공략했으며, 특히 온라인 구매가 생소한 이들 국가에서 현지 영업점 구축을 추진한 것이 주효함
- 광고 전략에서도 범용 PC의 특성상 제품의 성능과 속도보다는 제품 이미지와 사용의 용이성을 알리기에 주력한 것이 성공을 함

□ 보상 수단으로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의 활용이 증가

■ **미국 대기업들 사이에서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RS: Restricted Stock)'이 경영진 보상의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

- RS는 경영자에게 일정 기간 매각 제한이 있는 주식을 미리 지급하고, 기간 내에 실적 달성을 못하면 권리가 소멸됨
- 미국 상위 250대 기업의 경우, 지난해 스톡옵션 제공 회사는 90%(2003년 99%)로 감소했지만 RS를 도입한 기업은 같은 기간 26%에서 40%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GE, BOA, 듀퐁, 펩시, 리만 브러더스 등이 도입하고 있음

■ **RS는 주식을 활용하여 경영 실적과 보상을 연결한 새로운 보상 체계**

- 과도한 연봉과 스톡옵션의 비용과다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RS는 실적과 보상을 연결함으로써 일반적인 스톡옵션의 단점을 일정 부분 해결함
- 회사가 제시한 이익, 주가, 시장점유율 등의 기준을 넘어서야 권리 행사가 가능하고, 퇴사 시에는 주식을 반환함으로써 회사 비용을 감소시킴

□ '사회적 지능지수'(SQ)가 중요하다

■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사회적 지능지수(SQ : Social intelligence Quotient)가 높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음**

- '사회적 지능'이란 좋은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긍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다루며, 사회(조직)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인간관계는 조화롭게 생산적인 것으로 이끌어 가는 능력을 말함

■ **지능 지수(IQ), 감성 지수(EQ), 네트워크 지수(NQ), 투자 지능지수(FQ), 역경 지수(AQ) 등이 있었지만, 결국 성공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SQ가 중요하다는 것임**

- 사회적 지능지수(SQ)가 높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여기며 책임감이 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적인 데다 협조와 협동을 즐기며 조직의 협동적 성과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고 함

□ '메시지 중독'과 '사이버 휴가'

■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창조되었던 각종의 커뮤니케이션 기술 등이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3일자 파이낸셜 타임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이메일 등은 직장인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정신적인 피로에 시달리게 하는 '독'이 되고 있다고 보도함
- 수시로 메시지를 확인하고 기다리며,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메시지가 오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메시지 중독' 증상마저 나타나고 있음
- 미국 직장인의 경우, 이러한 메시지들로 인한 '업무 방해' 시간은 하루 평균 2.1시간이라고 함
- 또한 커뮤니케이션 기기 사용으로 인한 집중력 분산은 IQ 저하로 연결되었는데, 각종 전화와 e메일에 노출된 집단이 그렇지 않는 집단에 비해 IQ가 평균 10점이나 떨어졌다고 함

■ **전문가들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으로 '사이버 휴가'를 제안함**

- 특정 시간을 정해 사이버 접촉을 끊고, 일이 있으면 직접 상대를 만나 대화를 나누거나 친필로 편지를 써보라는 것임

□ 중국의 '제2 상하이' 개발 전략*

■ **(톈진의 '제2 상하이' 구상) 중국 정부는 중국 제3의 도시인 톈진(天津)을 상하이와 함께 중국 경제를 이끄는 양대 축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며, 이에는 원자바오의 정치적 배려도 포함되어 있음**

- **(톈진의 미래 발전 방향)** 최근 중국 국무원은 물류 중심지, 금융 및 첨단기술 산업단지, 생태도시의 3가지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톈진 장기종합발전계획(2005~2020년)을 승인함
  - **물류 중심지화:** 톈진에서 광둥(廣東)성의 산터우(汕頭)간 고속도로를 크게 확장하고 톈진 항만을 3배 이상 확대(2006년~2010년, 11차 5개년 계획)하여 동북아 허브 기능을 감당하는 도시로 성장시키려 함
  - **금융 및 첨단기술 산업단지화:** 톈진의 경제특구인 빈하인신구(濱海新區)를 금융개혁시범지구로 지정하여 상하이 푸동(浦東)과 함께 중국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양대 축으로 성장시킬 계획임
  - **생태도시화:** 한편, 2,270㎢의 빈하인신구 중 건설용지가 580㎢로 제한되는 등 기존의 개발모형과는 다른 생태도시를 추구함

- **(톈진 개발의 정치적 의미)** 원자바오(溫家寶, 톈진 출신) 총리는 톈진 개발을 통해 소외된 동북부 지역 주민의 불만 약화 및 장쩌민(江澤民, 상하이 출신) 국가 주석의 추종 세력 약화를 꾀하고 있음

■ **(한국에 대한 영향) 톈진의 '제2 상하이' 구상은 톈진 내 한국 기업에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인천과 부산 등 국내 물류 중심지에 대해서도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임**

- **(톈진 내 한국기업, 조선족에 영향)** 톈진은 한국기업 1,800 여개가 진출해 있고 4~5만 명에 이르는 한국인과 수만 명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어 톈진의 '제2 상하이' 구상은 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톈진의 부상에 대한 대비 필요)** 향후 물류 중심지로서의 톈진의 부상은 인천 송도와 영종도, 부산 등 국내 물류 중심지에 대해 위협요소로 작용할 전망으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함

---

* 이 글은 『ECONOMY21』(2006.08.29)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지식 합성(knowledge synthesis)

근본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적용함으로써 가치를 창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지식을 한데 통합함으로써,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기존의 지식을 합성함으로써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를 게리 하멜은 지식 합성(knowledge synthesis)이라 불렀다.

지식 합성의 고전적인 사례는 스와치(Swatch)이다. 이 회사는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으로 스위스 시계산업을 재건해 내는 데 성공했다. 롤렉스(Rolex)로 대표되듯이 원래 스위스는 고품질 시계가 주특기였다. 그런데 스와치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감행했다. 시계에 새로운 지식으로서의 '패션'(fashion)을 수용했던 것이다.

여기서부터 스와치의 지식 합성은 시작된다. 스위스인들은 패션 감각, 패션 능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패션 기술을 수입해 온다. 플라스틱으로 이전과 같은 고급 시계를 만드는 일은 만만치 않은 도전이다. 금속을 이리저리 구부리는 것에 대해선 속속들이 알고 있지만 플라스틱 사출 성형이나 초음파 용접 같은 것은 전혀 모르는 분야였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배우려고 덴마크의 장난감회사인 레고(Lego)와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에서 온 패션, 덴마크로부터 온 플라스틱 사출 성형 기술, 시계 품질에 관한 스위스의 명성을 한데 모아 그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제품을 내놓았다. 바로 스와치의 경쟁력이 만들어졌다.

제품과 서비스가 날로 복잡해지고 체계화 될수록 '지식의 합성'이 중요해진다. 여러 가지 것들을 취해서 한데 모으는 과정 그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지식을 창조한다. 물론 그냥 갖다 맞춰서는 곤란하다. 서로 다른 종류의 지식과 능력을 용광로 안에 넣고 융합시키는 작업이 이뤄져야 경쟁력있는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는 것이다.

"어떤 말을 만 번 이상 되풀이하면
반드시 미래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

- 아메리카 인디언 금언